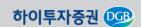
하이 FX Monitor





2022-08-29

[Economist] 박상현 2122-9196 shpark@hi-ib.com / 류진이 2122-9210 jinlee@hi-ib.com

1,350원 공방 지속

■ 주간동향: 잭슨 홀 이벤트, 달러 강세에 더욱 힘을 실어줘

- ✓ 파월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 '파월 피봇'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매파적 메시지를 금융시장에 던져주면서 가뜩이나 초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달러화에 더욱 힘을 실어중
- ✓유로화 가치의 하락 폭은 전주대비 다소 완화되었지만 패리티 이하에서의 초약세 현상은 유지됨. 달러화 강세와 함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 우려로 인한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 급등 현상 지속이 유로화 약세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음
- ✓위안화 가치 역시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감.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혹은 방어를 위한 추가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중국 경기 경착륙을 둘러싼 우려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음
- ✓원/달러 환율이 주초 1,345원까지 급등하는 등 1,350원 수준을 위협하기도 했지 만 잭슨 홀 이벤트 관망심리, 주가 반등 그리고 정부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등으로 상승폭을 축소한체 마감함

<표> 주요국 주간 환율 동향

| | 8월 26일 종가 | 전주 대비 (%) | 전년말 대비 (%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달러화 지수 | 108.8 | 0.59 | 13.73 |
| 달러/유로 | 0.997 | -0.71 | -12.35 |
| 엔/달러 | 137.6 | 0.49 | 19.60 |
| 역외 위안/달러 | 6.895 | 0.86 | 8.46 |
| 원/달러 | 1331.3 | 0.41 | 11.99 |

■ 금주: 원/달러 1,350원을 돌파를 두고 공방 지속

- ✓ 파월의장의 잭슨홀 미팅을 통해 미 연준의 매파 기조가 확인됨으로써 당분간 달러 강세기조를 꺾을 수 있는 모멘텀 혹은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임. 반면 유로화의 추가 약세 흐름은 강화될 수 있어 달러화 가치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임. 천연가스발 에너지 불안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고 가뭄 리스크마저 유로 경기는 물론 유로화 가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임
- ✔여기에 파운화 역시 영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급락하고 있음도 달러화 추가 강세에 힘을 더해주고 있음
- ✔위안화 역시 하락세를 반전시킬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. 경기 방어를 위한 잇따른 부양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부양효과에 대한 의 문은 위안화 가치 반등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음. 이러한 상황에서 금주 발표될 8월 제조업 PMI지수 역시 2개월 연속 50선을 하회할 공 산이 높다는 점도 위안화 추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
- ✓불안한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금주 원/달러 환율은 재차 1,350원선 위협할 가능성이 높음. 다만, 정부의 1,350원선 방어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1,350원 저항선이 쉽게 돌파될지는 않을 것임.1,350원을 둔 시장과 정부간 공방이 예상됨

연일 급등중인 천연가스 가격이 유로화 약세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



자료: Bloomberg, CEIC,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파운드화 가치의 추락도 심상치 않은 상황임



Compliance notice

- 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 : 박상현, 류진이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